

한국 개신교 수용의 사회문화적 토대에 관한 연구

- 평안도 지역을 중심으로 -

이진구*

1. 서론
2. 개항기, 일제하 평안도의 종교지형
 - 1) 천주교와 동학(천도교)의 부상
 - 2) 개신교의 교세편중화와 평안도
3. 개신교 수용 및 성장의 사회문화적 기초
 - 1) 정치적 변경성
 - 2) 경제적 선진지대
 - 3) 문화적 주변부
4. 개신교의 수용양상
5. 결론

1. 서론

한국 근대 종교사는 국가유교의 해체와 전통종교인 불교의 복원, 서구종교의 수용과 확산, 그리고 신종교의 흥기로 특징지워진다. 특히 서구종교로 들어온 개신교의 급격한 성장과 근대 한국 신종교의 기반이 되는 동학(천도교)의 급속한 교세 성장은 조선조 이래의 전통적인 종교지형(religious terrain)을 결정적으로 변동시킨

* 한국 외국어대 강사

요인이다. 그러나 개항기와 일제하에 이루어진 종교지형의 변동은 모든 지역에서 동시적으로 동일한 규모로 진행된 것은 아니다. 지역에 따라 전통종교의 사회문화적 영향력이 강인하게 지속된 곳이 있는가 하면, 새로이 등장한 종교가 급격하게 사회문화적 영향력을 형성하여 간 곳도 있다.

이 시기의 평안도는 개신교와 천도교의 수용과 확산이 가장 급격하게 이루어진 지역이다. 특히 개신교는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속도로 급팽창하였다. 따라서 본고는 개신교가 왜 평안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될 수 있었으며, 어떠한 과정을 통해 수용되었는가, 그리고 이는 한국종교사에서 어떠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물음을 가지고 출발한다.

평안도 지역 개신교의 급성장에 관한 관심은 최근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선교 초기부터 주목되어 왔다. 그러나 평안도 개신교의 급성장 요인이 체계적으로 분석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부터다. 선교사 서명원(Roy E. Shearer)¹⁾은 선교정책(Nevius method)²⁾보다도 피선교지의 환경적 요인이 개신교의 성장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고 보았으며, 특히 한국의 북부와 남부의 문화적 차이가 개신교의 수용 및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지적하고 있다.³⁾ 그러나 그는 주로 선교사 자료에만 의존한 결과, 이러한 요인들을 나타나게 한 서북지역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7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광린⁴⁾이 관서지방⁴⁾ 개신교의 수용 및 성장을 ‘자립적 중

1) 서명원. 『한국교회성장사』 (이승익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6). 원제는 Roy E. Shearer. *Wildfire : Church Growth in Korea*.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66).

2)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가장 대표적인 책은 광안린. 『한국교회와 네비우스정책』 (박용규, 김춘섭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원제는 Charles Allen Clark. *The Nevius Plan for Mission Work* (Seoul: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1937)이다.

3) 먼저 북부지방은 남부지방에 비해 문자(한문 및 한글) 해득률이 높았으며, 둘째 유교이념으로부터 더 자유로울 수 있었으며, 셋째 일제의 공업화 정책이 실시되었을 때 자기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서북부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풍요해졌으며, 넷째 중앙정계를 남쪽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부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소외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서명원. 앞글. 179~180쪽.

4) ‘관서지방’은 평안도 지역과 황해도 북부지역을 가리키며, ‘서북지방’은 사전적으로는 평안도, 황해도, 함경도를 모두 가리켰지만 평안도와 함경도만을 가리키는 경우도 많았다. 그 경우 황해도는 海西지방으로 구별된다. 오수창. 『조선후기 平安道民에 대한 人事정책과 道民의 정치적 동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a). 7쪽.

산층'(Independent middle class)⁵⁾이라는 사회계층과 관련시켜 논하였다.⁶⁾ 그에 의하면 관서지방에서는 남부지방과 달리 '자립적 중산층'이 두터운 층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이들이 바로 개신교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사회계층이라는 것이다. 그의 논문은 조선조와 개항기의 한국측 사료를 활용하여 서명원의 논지를 보강하였다는 의의를 지니고 있지만, 개신교 수용의 근본적인 배경을 이루는 조선시대 평안도에서의 정치사회적 차별의 논리와 구조, 사회경제적 특성, 그리고 문화적 성격에 대한 분석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80년대에 들어와서는 서북지방에서의 개신교 수용과 민부(民富)성장 사이의 연관성을 실증적으로 해명하려고 하는 시도도 나왔다.⁷⁾ 최단옥은 '자본주의 정신과 프로테스탄트 윤리의 선택적 친화성'이라는 배버의 고전적인 테제가 이 시기의 서북지역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일제시대 서북지방의 민부성장을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외에도 서북지역 개신교의 성격과 관련하여 이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윤경로,⁸⁾ 김형석⁹⁾ 등의 연구가 있다.

90년대에 들어와서는 지역교회사에 대한 관심 속에 평안도 지역의 개신교에 대한 연구가 다시 부각되고 있지만,¹⁰⁾ 아직 본격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이처럼 60년대 이후 이루어진 평안도 지역의 개신교의 성장과 성격에 관한 연구는 한국종교사 연구에 일정한 기여를 해왔으나, 대부분의 연구가 평안도 지역의 전반적인 사회문화적 배경과 관련하여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상당한 연구의 공백이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다행히도 최근 들어 국사학계에서는 지역사 연구의 일환으로 조선시대 평안도

5) '자립적 중산층'(Independent Middle Class)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의 독창적인 용어가 아니라 배어드(William M. Baird, 배위량)라는 선교사가 "Notes on a Trip into Nothern Korea"라는 짧은 글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이다. *The Korean Repository* 4 (1897. 5). 196쪽.

6) 이광린. "관서지방과 개신교". 『한국의 근대화와 기독교』 (서울: 숭실대학교출판부, 1974/1983). 36~50쪽.

7) 최단옥. 『新敎의 韓國傳來와 西北地方의 民富成長』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4)

8) 윤경로. 『105인 사건과 신민회 연구』 (서울: 일지사, 1990). 105~109쪽.

9) 김형석. "한국기독교와 3.1운동--서북지방의 기독교 민족운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민족운동』 (서울: 종로서적, 1986)

10) 대표적인 것으로는 서정민. "평안도 지역 기독교사의 개관".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3호 (1994). 그리고 북한교회사집필위원회. "평안도 교회의 역사". 『북한교회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6)가 있다.

지역의 사회경제사에 대한 연구가 부분적으로나마 나오고 있다.¹¹⁾ 따라서 본고는 60년대 이후 이루어진 교회사학계의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평안도 지역에 대한 연구결과를 최대한 활용하여 기존연구의 공백을 메꾸어 보고자 한다.

2. 개항기, 일제하 평안도의 종교지형

개항기의 평안도 지역은 유교와 불교로 대표되는 전통종교의 전반적인 침체속에서 동학, 천주교, 개신교로 대표되는 새로운 종교들이 세력을 확장하여 나아가는 종교문화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동학의 후신인 천도교와, 천주교보다 뒤늦게 수용된 개신교가 급부상하는 지역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개신교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평안도에서 천주교와 동학(천도교)이 어떠한 종교적 위상을 지니고 있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천주교와 동학(천도교)의 '복상'과 확산

조선후기 천주교의 초기 수용계층은 당시의 집권세력이 아니라 중앙정계에서 소외된 기호남인 계열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거주지였던 경기, 충청권의 남한강 유역이 초기 천주교 공동체의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상제사 문제와 관련하여 조선정부로부터 대대적인 탄압을 받는 과정에서 양반층의 대부분이 신앙공동체에서 탈락하자, 천주교 공동체의 주도층은 중인 이하의 민중계층으로 이동한다. 이후 천주교는 '지하신앙'(catacomb church)의 형태를 띠면서 중부 지역과 삼남 지역의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게토화'(ghettoization)한다.¹²⁾

11) 대표적인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고석규. "18세기말 19세기초 평안도 지역 향권의 추이". 『한국문화』 제11집 (1990). 오수창. "17, 18세기 평안도 유생, 무사층 성장의 사회경제적 배경" 『규장각』 제18집 (1995a). 오수창. "18세기 영조 정조의 평안도에 대한 정책". 『역사와 현실』 제17집 (1995b). 오수창. "17, 18세기 평안도 유생층의 정치적 성격". 『한국문화』 제16집 (1995c). 오수창. "조선 후기 평안도 지역차별의 극복 방향". 『역사비평』 (1996b 여름).

12) William E. Biernatzki, S.J., Luke Jin-chang Im, and Anslem K. Min. *Korean Catholicism in the 70s* (NY: Orbis Books, 1975). 5쪽 참조.

그러나 개항 이후 한불조약을 기점으로 포교활동이 목인되자 천주교는 '복상'하기 시작하여 관서지방으로 점차 세력을 확장하게 된다. 특히 황해도와 평안도에서 천주교 교세가 급속히 확장되었다. 황해도에서는 1902년 당시 교인이 7,000명으로 급증하였으며,¹³⁾ 평안도에서는 1923년 미국 메리놀의방선교회가 진출할 무렵 신도가 5천명이었다.¹⁴⁾ 일제말엽인 1940년에는 평안도 지역의 천주교인 숫자가 전국 천주교인의 약 16%를 차지하게 된다.¹⁵⁾ 이처럼 천주교는 한국천주교의 발상지인 중부 지역에서 여전히 강세를 보였지만 평안도를 중심으로 하는 북부지역으로 점차 교세가 확장되어 갔던 것이다.¹⁶⁾

한편 동학의 초기 활동무대는 삼남지역이었으며, 1894년에 일어난 '동학농민전쟁'도 삼남지방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삼남지방에서는 동학에 대한 유생과 관인들의 탄압과 지목이 심했으므로 전쟁 이후 상당수의 '북접'(北接) 교도들이 비교적 감시가 약한 북쪽 산간지역으로 피난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평안도 지방에 동학이 수용된 것이다. 평안도에서 동학을 수용한 주도계층은 경제적으로 부농층에 속하는 '농촌지식인'이었으며,¹⁷⁾ 지역적으로는 도시나 평야지대보다는 산간이나 농촌지역에서 강세를 보였다.¹⁸⁾ 이는 동학이 1905년 천도교로 교단명칭을 바꾸기 이전까지는 여전히 관의 지목을 받고 있었으므로,¹⁹⁾ 도시지역보다는 산간지대가 보다 안전했을 뿐만 아니라, 동학의 언어와 논리가 '근대적인 지식층'보다는 한학적 소양을 지닌 전통지식인에게 보다 친밀감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²⁰⁾

동학농민전쟁 이전 북부지방의 동학교세는 황해도를 제외하고는 매우 미약하였으나,²¹⁾ 1900년대 접어들면서 부터 천도교의 교세는 평안도로 집중되어 당시 평안

13) *Compte Rendu* 1902년도 보고서 ; 신광철, 『초기 한국 가톨릭과 개신교의 상호관계 및 이해에 대한 연구』(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70쪽.

14) 천주교평양교구사편찬위원회, 『천주교평양교구사』(왜관: 분도출판사, 1981). 47쪽.

15) 朝鮮總督府, 『朝鮮の宗教及享祀要覽』(1940). 한국종교사회연구소 편, 『93한국종교연감』(서울: 도서출판고려한림원, 1993) 149쪽 참조.

16) 당시 평안도 천주교의 본당은 산간지대가 아니라 대체로 평야지대와 새로 발전한 신흥도시에 치우쳐 있었다. 천주교평양교구사편찬위원회, 위글. 47쪽.

17) 조규태, “舊韓末 平安道 地方의 東學”, 『東亞研究』 제21집. 63~65쪽.

18) 조규태, 위글. 78~80쪽.

19) 1907년 대한제국 정부는 천도교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교조 최계우와 2세 교주 최시형의 '罪案'을 삭제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조기주, 『東學의 原流』(서울: 천도교중앙총부, 1979). 260~261쪽.

20) 물론 농민을 중심으로 하는 민중층은 동학의 '주술적인' 치병의례에 친밀감을 가졌을 것이다.

도는 천도교 교세의 3/4 가량을 차지하게 된다.²²⁾ 이러한 교세분포 현상은 일제하에서도 계속되어 평안도를 포함한 북부지방이 천도교의 교세를 주도하게 된다.²³⁾

2) 개신교의 교세편중화와 평안도

동학이나 천주교와 달리 개신교는 중부지역이나 삼남지역으로부터 북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만주와 관서 지방을 주요 관문으로 하여 전파되고 수용되었다. 특히 평안도 지역에서는 선교사가 입국하기 이전부터 이른바 현지의 매서인(買書人)들을 통해 성서와 전도책자들이 광범위하게 유포, 유통되고 있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일찍부터 자생적인 신앙공동체가 형성되고 있었다. 그렇지만 평안도는 개신교의 단순한 수용경로 역할에 그친 것이 아니라 교세의 측면에서도 타지역을 압도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선교초기부터 평안도 지역에서의 개신교의 급격한 성장을 보고하는 글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미국 장로교 해외선교부 총무로 활동했던 스피어(Robert E. Speer)는 “북쪽의 교회는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넘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 교회는 봄빈다. 기회는 무한하다”²⁴⁾라고 하면서 북부지역을 대표하는 평안도의 놀라운 교회성장에 대해 보고하고 있으며, 북장로교 선교사로 활동하던 헐버트(H. B. Hulbert)도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21) 당시 독립운동가 김구(金九)는 황해도의 접주 중의 한 사람이었다. 김구. 『白凡逸志』(白凡金九先生紀念事業協會編, 1947). 29~30쪽 참조.

22) 1903년 천도교의 조직 형태인 대두령제(大頭領制)가 실시되었을 때 4명의 의창대령(義昌大尉)중 3명이 평안도 출신이었다. 의창대령은 교도 1만명을 관할하는 직책이었다. 이는 당시 전국적으로 4만명 이상의 교도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평안도에는 최소한 3만명 이상의 동학 교도가 거주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천도교사편찬위원회 편. 『天道敎百年略史』(상)(서울: 天道敎中央總部, 1981). 337쪽.

23) 천도교 교인의 지방별 분포현황(1919년 현재)

지방명	경기	충청	경상	전라	강원	황해	평안	함경	총계
교인수	588	9, 601	1, 296	10, 484	4, 430	16, 656	67, 763	20, 066	130, 884

* 이 통계는 조선총독부 촉탁 村山智順이 저술한 『朝鮮の類似宗敎』(朝鮮總督府學務局, 1935)에 나와 있는 지방별 통계를 참고하여 재정리한 것이다. 476~718쪽 참조.

24) The Annual Report of the Board of Foreign Mis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U.S.A. (1898). 158쪽.

장로교 선교회의 관할하에 있는 한국 북부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선교 지역으로 널리 주목을 받고 있다. 그것은 단지 교회와 관련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독자적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놀랄만한 결과 때문이다.²⁵⁾

이는 서북지역이 교인수만 많은 것이 아니라 선교부에 의존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자립교회를 운영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글이다. 그리고 당시 세계적인 선교잡지도 서북지역에서의 교회성장이 경이적임을 보고하였다.²⁶⁾

1910년 당시 평안도 교회는 전국 장로교 교회수의 38%를 점유하고 있으며, 여기에 황해도를 포함하면 점유율은 53%로서 전국 교회의 반수를 넘게 된다.²⁷⁾ 장로교 교회만이 아니라 개신교 교파 전체의 신자수 분포를 보아도 평안도 중심의 교세분포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1940년 당시 전국의 교인수는 382, 718 명인데 평안도는 그중 약 43%에 해당하는 신자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²⁸⁾ 이처럼 해방이전에는 지역별로는 평안도, 교파별로는 장로교가 한국 개신교의 교세성장을 주도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개항기, 일제하 평안도의 종교지형은 새로운 종교로 출현한 천도교와 기독교가 전통종교인 유교와 불교, 그리고 민간신앙으로부터 조직적인 조항을 받지 않

25) H.B. Hulbert. *The History of Korea(II)* (Seoul, 1905). 325~326쪽.

26) “영국성공회 선교회가 우간다에서 세운 선교 실적 다음으로 이 한반도에서의 장로교 선교부처럼 놀라운 발전을 이룩한 곳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하는데, 이 보급지역은 서북쪽 兩道の 전폭이다”. *The Missionary Review of the World*. XV/7 (1902). 553쪽 ; 백락준. 『한국개신교사』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73). 286쪽.

27) 조선예수교장로회 교회설립 현황(1910년 현재)

지역명	서울	함북	함남	평북	평남	황해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총계
교회수	11	5	24	98	162	102	56	23	2	30	45	83	42	683

위의 표는 『朝鮮예수敎長老會史記』(上) (서울: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1928)에 근거한 통계임 ; 이광린. 뒷글. 33쪽.

28) 전국 개신교 교인수의 지역별 분포(1940년 현재)

지방명	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	황해	평안	함남	총계
교인수	38,136	16,386	30,748	50,745	9,544	47,536	163,861	12,896	382,718

朝鮮總督府. 『朝鮮の宗教及享祀要覽』 (1940).

고 교세를 급속하게 확장해 가는 과정으로 특징지워 볼 수 있다. 이는 다른 지역에서도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평안도는 이러한 현상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 훨씬 급속한 속도와 광범위한 규모로 진행되었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면 다른 지역과 달리 평안도에서 이러한 특수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요인은 무엇인가? 본고는 선교부와 선교사의 선교정책보다도 개신교가 수용되기 이전 평안도 지역이 독특하게 지니고 있었던 사회문화적 토대와 성격에서 그 근본적인 요인을 찾고자 한다.

3. 조선후기 평안도 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성

1) 정치적 변경성

조선왕조의 태조 이성계는 그 자신 함경도 출신으로서 새 왕조를 세우는 과정에서 서북지역 무인들의 힘에 의존했음에도 불구하고, 개국 후에는 “서북지방 사람을 높은 벼슬에 임용하지 말라”²⁹⁾는 명을 내렸다. 이러한 원칙은 후대로 이어져 세조는 『경국대전』을 편찬하면서 서북인의 등용제한을 명하는 조문을 명문화하도록 하였으며, 성종은 이를 구체화하여 서북지역 출신의 관리임용 숫자를 다른 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였다.³⁰⁾

중종대에 편찬된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 「금제조」(禁制條)에도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사람은 여러 관원이나 鷹師에 소속시키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영조대에 나온 『속대전』(續大典) 「제수조」(除授條)도 “영남 함경 평안 송도 사람은 望單子에 注를 달아라”³¹⁾라고 하여 영남 남인과 서북계의 등용을 억제하고 있다.

29) “太祖...既得國 還命西北人勿大用”. 『擇里志』(李重煥, 대양서적, 1972); 따라서 상무직 기풍이센 평안도와 함경도 출신에 대해서는 엄격한 차별을 하였던 것이다. 『조선전사』 제8권 (과학백과출판사/청년사, 1979), 52쪽.

30) 『경국대전』에 규정된 생원, 진사 초시의 정원(試取額數)은 경기도 60, 경상도 100, 충청도 90, 전라도 90명인데 비하여, 평안도는 45명으로 규정되었다. 식년문과 초시의 경우는 경기도 20, 경상도 30, 충청도 25, 전라도 25명인데 비하여, 평안도는 15명이었다. 조좌호, “과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제2권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31) “嶺南 北關 西關 松都人 望單子 懸註”. 『吏典』. 『校註 大典會通』 (서울: 보경문화사, 1938/1985). 여기서 望單子란 관리 임용시 3배수로 후보자를 추천하는 문서를 말한다.

이처럼 평안도인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차별은 조선시대 전기간 동안 법전의 형태로 이미 명문화되어 있었던 것이다.

평안도인에 대한 이러한 법제적 차원의 차별과 제한은 실제적인 관리임용 과정에서 보다 전형적으로 드러난다.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전반에 이르는 시기에 식년시(式年試)에 급제한 사람의 숫자는 평안도가 전체의 26.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지만, 별시(別試)의 경우에는 5.9%로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당시 식년시는 다분히 체제유지를 위한 지배층내의 민심수습책의 기능을 하였던 반면, 별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지배층을 위해 실시하였던 시험의 성격을 각각 지니고 있었다.³²⁾ 따라서 평안도 출신들은 식년시에서 가장 많은 숫자의 과거급제자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별시 출신들과 달리 핵심 요직에는 진출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당시에는 문과에 급제한 자들이 고위관료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승문원 분관(承文院 分館), 무과에 급제한 자들은 선전관천(宣傳官薦)에 들어가야만 하였으나,³³⁾ 서북인들은 양자 모두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³⁴⁾

또한 문신 가운데서 고위관료에 해당하는 당상관(堂上官)의 일차적인 후보집단을 선정하는 도당록(都堂錄)의 경우를 보면, 평안도에서는 단 한사람도 이에 오르지 못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³⁵⁾ 따라서 조선전기에 평안도 출신의 당상관은 한명도 없었고, 조선중기 이후 평안도인 중에 언관을 비롯하여 정치의 중심이 되는 관직(淸要職)에 임명된 사람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고, 변두리의 관직을 전전한다 하더라도 참서관인 6품직에 올라가면 곧 길이 막히고 말았다.³⁶⁾ 이러한 예들은 결국 당시 평안도 출신의 급제자들이 단지 관행의 차원이 아니라 구조적인 차원에서 차별받고 소외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처럼 사족관인들이 지배하는 중앙정계는 서북출신들을 정치무대에서 배제하려고 하였지만, 탕평책을 시도한 영조와 정조, 혹은 공신(功臣)들은 사족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오히려 서북인을 등용하려는 입장을 지니고 있었다. 특히 조선후기의

32) 남지대. “중앙정치세력의 구조”. 『조선정치사 1800~1863』 (서울: 청년사, 1990), 148쪽.

33) 오수창. “조선후기 평안도 지역차별의 극복방향”. 『역사비평』 (서울: 역사비평사, 1996 여름), 285~286쪽.

34) 오수창. 『유헌(1996a)』, 24~34쪽.

35) 오수창. 『유헌』, 157~162쪽.

36) 심지어 서북인이 국경지방의 변장(邊將)에 임명되는 경우에는 모두 다른 도로 바꾸게 하였고 균졸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이화. 『한국의 파벌』 (서울: 여강출판사, 1991), 125~127쪽.

재야 실학자들은 지역차별에 따른 편파적인 인재등용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다. 성호 이익(李翼)은 “서북사람을 가려 써줄 것을 吏曹 戶曹에 말하는 것이 예로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뛰어난 인재라도 보배를 품고 말라 죽을 뿐”이라고 하면서 당시의 현실을 한탄하고 있으며,³⁷⁾ 다산 정약용(丁若鏞)도 당시에 일반화된 인재등용 시의 불공평성과 차별성을 비판하고 있다.³⁸⁾ 영조대의 핵심관료였던 대사간(大司諫) 송익보(宋翼輔)도 서북인들이 과거에 합격하고도 관리로 임용되지 못하는 현실을 “과거증서만을 껴안고 들뜬에서 말라죽게 만드는 경우”³⁹⁾라고 개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과 건의는 중앙정계를 장악하고 있던 사족관인들에 의해 대부분 채택되지 않았다.

이처럼 법조문과 실제 관리임용에서 서북인에 대한 차별이 시정되지 않고 계속되자 서북인들은 중앙정부에 대하여 심한 반발심과 적개심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 19세기초 평안도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난 평안도농민전쟁(일명 홍경래란)은 조선조 이래 계속된 서북차별 정책이 하나의 중요한 계기로 작용한 사건이었다.

우리 관서의 父老子弟와公私노비들은 모두 이 檄文을 들으시오. 우리 關西는 箕子의 옛성이 있고 단군의 옛굴이 있어서 인물이 우뚝하고 문물이 빛났소...그런데도 조정에서 서쪽땅 버리기를 톱덩이나 다름없이 하고 심지어 권문세가의 노비들도 서쪽 사람을 보면 평안도 놈이라고 하니 그 서쪽 사람이 된 자 어찌 원통하고 억울하지 않겠소...⁴⁰⁾

이 격문에는 평안도 차별정책에 대한 억울함과 원통함이 여실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당시 상당수의 평안도인들이 계층을 불문하고 농민전쟁에 참여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충분히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결국 평안도농민전쟁은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평안도 차별정책은 커다란 변화없이 계속되었으며, 그 결과 평안도의 정치적 ‘변경성’은 19세기 후반까지 지속되었던 것이다.

37) 李翼, 「人事門 西北人才條」, 『星湖僿說類選』.

38) “은 나라의 영재를 모두 발탁하여도 오히려 부족할까 걱정인데 하물며 그 八九割을 버리고 서야...西關, 北關人... 버리지 않은 것은 오직 閥族 數十家에 지나지 않는다”. 『通塞議』, 『정다산전서』(상) (문헌편찬위원회 영인본, 1960). 183쪽.

39) 『承政院日記』(英祖 十九年二月十二日條); 오수창, 芻言(1996b). 289쪽.

40) 정석중, “홍경래의 란”, 『전통시대의 민중운동』(하) (서울: 풀빛, 1981). 308~309쪽.

2) 경제적 선진지대

이처럼 평안도는 조선조 이래 중앙정부로부터 정치적 차별을 받아왔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타지역에 비하여 선진적인 모습을 띠고 있었다. 평안도의 경제적 조건을 유리하게 만든 요인은 상공업 특히 상업의 발달이다. 상업 특히 국경무역은 농업보다 훨씬 커다란 이윤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평안도에서 상업이 발전할 수 있었던 요인은 일차적으로는 자연적 지리적 특성에서 연유한다. 평안도의 자연적 조건은 척박하여 경지면적이 적고 논보다 밭이 많았지만, 국경지대라고 하는 지리적인 특성으로 인해 일찍부터 상업에 종사하는 자가 많았던 것이다.⁴¹⁾ 그리고 앞서 살펴보았듯이 평안도인들은 원천적으로 중앙정계로의 진출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 이윤을 찾아 상업에 투신하는 자가 많았던 것 역시 상업발달의 한 요인이다.⁴²⁾

역사적으로 보면 17세기 중엽이후 북경사절단을 따라가 행하는 사행(使行)무역과 국경지대인 압록강 방면에서 행하는 관무역인 ‘중강개시’(中江開市)가 발달하였으며, 그후 사무역인 ‘중강후시’(中江後市)와 ‘책문후시’(柵門後市)가 관무역을 대체함에 따라 평안도는 전국에서 가장 번성하는 지역으로 등장하게 된다.⁴³⁾ 특히 18세기 이후 청나라와의 국제질서가 안정되어 감에 따라 군량이나 외교비용으로 비축한 곡식과 돈을 운용함으로써 지방재정에 여유가 생겼고 그것은 다시 상업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게 된다.⁴⁴⁾ 당시 청나라와의 무역은 개성의 송상(松商)과 의주의 만상(灣商)이 독점하다시피 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평안도의 안주(安州)와 평양은 대도시(大都會)가 되었고, 특히 평양의 번성함은 서울을 능가하였다.⁴⁵⁾ 18세기말 19세기초가 되면 평양의 유상(柳商), 의주의 만상(灣商), 그리고 안

41) “우리나라의 관서지방은 토산물이 삼남지방에 미치지 못합니다. 밭이 논보다 많고 상인이 농민보다 많고 사람들은 根本, 즉 농사에 힘쓰어 적고 末枝, 즉 상업에 종사함을 좋아하는 형편입니다.” 『承政院日記』(正祖 十二年八月十八日條)

42) 『肅宗實錄』(肅宗 十三年 五月條); 오수창, 윗글(1996a), 122쪽.

43) 개성의 송상(松商)과 의주의 만상(灣商)이 중강후시에 만족하지 못하고 책문후시를 개척하자, 1700년부터는 중강후시마저 사라졌다. 책문후시는 의주와 봉황성 사이에서 행해진 사무역이다. 북한교회사집필위원회, 『북한교회사』(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6), 32쪽.

44) 오수창, 윗글(1996b), 294쪽.

45) 여름에는 파리가 앉은 음식에는 수저도 대지 않았을 정도였다고 한다. 鶴蓮 裕, “평안도 농민전쟁의 참가계층”, 『전통시대의 민중운동』(하) (서울: 풀빛, 1981), 240~241쪽.

주상인은 서울의 경상, 개성의 송상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전국의 상권을 장악하고 국내의 상업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된다.⁴⁶⁾ 이처럼 평안도는 조선후기 상업 발달의 중심지로서 상당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던 것이다.

수공업 생산 역시 18세기 전후하여 평안도 지역에서는 현저히 발전하게 된다. 영변, 성천 등은 견직업의 주요산지였으며, 안주는 19세기 들어오면서 견직업의 중심지가 되었고, 야장업(冶匠業)도 발전하고 있었다. 19세기 전후에는 정주의 납청(納淸)장시와 박천군 용계면(龍鷄面) 일대를 중심으로 유기점의 수준을 넘어서는 유기공장수공업이 발전하였다. 서북지역에서는 광산경영에서도 새로운 요소가 발생하였으며, 대청 은자무역과 관련하여 금은광산의 채굴이 급속히 진행되었다.⁴⁷⁾

평안도의 이러한 경제적 번영과 풍요는 오히려 세도정권의 주요한 수탈대상으로 되었다. “평안감사도 저하기 싫으면 할 수 없다”는 말이나 “평안감사는 나는 세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말은 중앙에서 파견된 평안감사의 절대적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들이다. 즉 평안도 지역은 세도정부의 대리자인 평안감사에 의해 무한히 착취당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의미이다. 순조 연간의 대표적인 세도가 김조순(金祖淳)도 “關西는 大藩이다. 財富와 화려함이 나라에서 최고이다. 옛부터 재상들이 內職을 사양하고 外職에 나가고자 하는 자는 항상 이 자리를 배회한다”라고 하면서 평안감사 자리가 재상들이 가장 선호하는 자리임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⁴⁸⁾ 즉 평양은 지방관 자리 가운데 ‘第一의 腹邑’이었던 것이다.⁴⁹⁾ 이는 결국 평안도가 중앙권력의 사적 경제영역을 뒷받침하는 물질 기반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평안도 지역의 경제적 성장과 발전 즉 경제적 선진지대로서의 특성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다.⁵⁰⁾

3) 문화적 주변부

46) 고석규. 율글. 354쪽.

47) 고석규. 율글. 354~355쪽.

48) 時任 이조판서가 기꺼이 평안도 관찰사 자리에 나아가려고 하였는가 하면, 황주(黃州)목사의 연봉이 3만냥이었던 것에 비해 평안감사는 연봉만해도 24만냥에 이르렀다고 한다. 『正祖實錄』(正祖 二十二年八月條); 고석규. 율글. 367쪽.

49) 위와 같음.

50) 위와 같음.

이처럼 정치적 소외와 경제적 발전으로 특징지워지는 평안도 지역은 지배문화의 관점에서는 주변부에 속하고 있었다. 조선조 사회는 성리학적 세계관으로 무장한 사족이 중앙정계를 운영할뿐만이 아니라 향약, 향회, 서원 등의 향촌자치기구를 통해 향촌사회를 통제하고 다스리는 이른바 '사족지배체제'로 특징지워진다.⁵¹⁾ 그러나 삼남지방과 달리 서북지역은 국경지대라고 하는 지리적 특성상 무인과 상인층은 비교적 많이 존재하고 있었으나 사족은 거의 거주하지 않고 있었다.⁵²⁾ 따라서 사족층의 세계관인 성리학적 이데올로기의 향촌 침투가 상대적으로 약하였다. 향촌사회에서 유교이념을 확산시키는 중요한 메카니즘의 하나인 서원건립의 현황을 통해 당시의 유교의 사회문화적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광혜군대까지 평안도에는 단 하나의 서원만이 존재하고 있었으며,⁵³⁾ 대원군에 의해 서원철폐령이 내려지기 직전의 평안도 지역의 서원건립 현황은 건립서원 65개, 사액서원(賜額書院) 28개로 나타나고 있다.⁵⁴⁾ 이는 전국에 존재하는 서원 숫자의 각각 7%, 10%에 불과한 것이다.⁵⁵⁾ 따라서 평안도 지역에서는 유교이념의 확산정도가 타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조선후기 이래로 평안도 지역에서는 서당의 확산으로 대표되는 보통교육이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다. 마을마다 향인층(鄉人層)의 주도하에 신분이나 경제력이 낮은 '상한(常漢)의 아이'들에게 서당교육이 시행되었던 것이다. 비록 이러한 현상이 조선후기의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하였지만, 평안도는 타지역보다 신분간의 차별이 심하지 않고 경제력이 상당하였기 때문에 보통교육의 확산이 더욱 두드러졌다. 그러나 이때의 교육의 효과는 “책 몇권을 읽어 성명을 이는데 그치는 것”이라는 평가에서 드러나듯이 중앙의 지배층이 인정할만한 학문과는 전혀 수준을 달리하는 것이었다.⁵⁶⁾ 따라서 이러한 교육과 지식의 확대는 성리학의 보급에

51) 정진영. “16, 7세기 재지사족의 향촌지배와 그 성격”. 『역사와 현실』 제3호 (서울: 역사비평사, 1989). 102~119쪽.

52) “서울 사대부는 서북지방 사람과 혼인을 하거나 벗으로 사귀지 않았다. 서북사람도 또한 감히 서울 사대부와 더불어 동등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西北 두 道에는 사대부가 없게 되었고 서울 사대부로서도 거기에 사는 자가 없었다”. 李重煥. 『咸慶道』. 『擇里志』. 102쪽.

53) 전국적으로는 101개의 서원이 건립되었으며, 평안도에 건립된 이 서원의 이름은 仁賢書院이다. 오수창. “17,18세기 평안도 유생층의 정치적 성격”. 『한국문화』 제16집(1995). 107쪽.

54) 정만조. “서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제12권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55) 한편 경상도 지역은 건립서원 330개, 사액서원 67개로 평안도보다 약 4배 이상의 서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위와 같음.

의해 평안도를 기존체제로 편입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기존체제에 포섭되지 못하는 새로운 저항세력을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18세기 후반 평안도에서 ‘뉘스를 끼고 左道를 講하여 惑世誣民하는 일’이나 점서(占書)나 지술서(地術書) 등을 익혀 ‘귀신과 접하고 점술을 신통히 하는 일’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거나,⁵⁷⁾ 19세기의 순조대에 궁궐에 잠입하는 등 변란을 피한 것으로 보이는 인물들의 언행에서 ‘관서비기’(關西秘記)나 ‘관서요서’(關西乂書)나 하는 서적들이 등장하고 있는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⁵⁸⁾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은 사족지배체제의 주변부에 자리잡고 있는 평안도 지역이 자신들의 정치적 소외와 경제적 착취에 대하여 보여준 하나의 대응양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평안도는 중앙정부의 통제력과 향촌의 지배세력이 상대적으로 약하였던 반면 상업의 발달 등으로 인한 경제적 변화와 변영, 그리고 민을 묶고 있던 신분적 이념적 구속과 질곡이 삼남 등 다른 지역보다 훨씬 약하였다고 하는 주변부적 특성 때문에 다가올 시대적 전환기에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4. 개신교의 수용양상

개항기라고 하는 시대적 전환기에 전통을 고수하고 새로운 사상을 거부하는 이른바 ‘척사위정론’이 삼남지역 중심으로 전개된 반면, 새로운 사상을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 들인 지역은 서울을 비롯한 주요도시를 제외하고는 서북지역 특히 평안도였다.⁵⁹⁾ 근대적 시민운동의 효시를 이루는 독립협회운동은 지역적으로 서울에 한정된 운동이었지만 지부활동의 반이 서북지역의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⁶⁰⁾ 이후 애국계몽운동 혹은 자강(自強)운동의 중심은 서북지방으로 옮겨진다.

56) 『承政院日記』(正祖 二年八月二十四日) ; 오수창. 翼 글(1996a). 218쪽.

57) 『正祖實錄』(正祖 七年十月) ; 오수창. 翼 글(1996a). 219쪽.

58) 『純祖實錄』(純祖 四年三月) ; 위와 같음.

59) “近世에 이르러서는 幸히 신문명의 공기를 흡수함이 타지방보다 조속하여 문화가 일찍 발달 되었으니 耶蘇敎가 最先 보급된 것과 光武隆熙 年間의 교육열이 전국에 冠하던 것과 모든 사회적 신운동이 西北 인사에 의하여 首唱됨이 多하던 것은 世의 주지하는 사실이며...”. 이 승훈. 翼 글. 400쪽.

60) 독립협회 지부가 설치된 도시는 평양, 대구, 의주, 선천, 강계, 북청, 목포, 인천이었다. 강재연. 『한국의 개화사상』(서울: 비봉출판사, 1981). 362쪽.

자강운동의 핵심을 이루는 교육운동은 평안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평안도와 함경도 출신이 만든 서북학회(西北學會)는 당시의 여러 학회중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었으며, 그 구성원은 신지식층, 신흥시민층, 중하급관료, 무관이 대부분이었다.⁶¹⁾ 이처럼 북부지방에서는 신식교육의 보급이 급속하였음에 비해 남부지방에서는 그것에 반발하는 경향이 강하여 구래의 한문서숙에 의한 유교 교육이 지배적이었다.⁶²⁾

자강운동의 또 한가지 축인 식산(植産)운동의 영역에서도 평안도가 가장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조선후기 이래 선진적 상공업 지대로서 발전하여 왔던 평안도의 상업자본이 개항기에 접어들어 그 특성을 발휘하게 되는 것과 연관이 있다. 개항기 관서지방에는 청일전쟁 이후 개항장의 신설, 운산금광을 비롯한 지하 광물자원의 개발, 일제의 대륙침략을 위한 철도부설, 철도부설에 따른 신흥도시의 성장 등으로 인해 상공업이 발전하고 민부가 상당히 형성되었다. 그러나 개항을 계기로 외국자본이 밀려들기 시작하고, 특히 청일전쟁 이후 관서지방에 진남포를 비롯한 개항장이 설치되면서 일본 상인들이 대거 침투하기 시작하자, 평안도의 전통적인 상인들은 상인조직을 형성하여 이에 대항하기 시작했던 것이다.⁶³⁾

당시 평안도의 거상이었던 이승훈은 경제적 자립이 전제되지 않고는 국권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에서 전국적인 토착자본의 규합을 위한 선행작업으로 우선 서북지방의 토착자본만이라도 하나로 규합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관서자문론’(關西資門論)을 내세웠다. 그리고 이것의 구체적인 실현방안으로 평양 마산동에 자기(磁器)주식회사의 설립을 시도하였다.⁶⁴⁾ 일제하에 들어가서는 이러한 논리가 민족기업의 이념을 가진 평양의 개신교인 사업가들에 의해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특히 평양의 고무신 공업과 양말공업은 일제시대 전체를 통해 이른바 ‘민족계’가 우위를 차지함으로써 다른 지역과 대조를 이루었다.⁶⁵⁾

61) 이승희. “한말 서북학회의 애국계몽운동”. 『한국학보』 제31호(1983 여름). 97쪽.

62) 강재연. 뒷글. 363쪽.

63) “평안도 사람들이 처음으로 상회를 설치하고 그 이름을 大同商會라 하였다. 外衙門의 관리들이 보호하고 있다”. 金允植. 『陰晴史』(下) (高宗 二十年六月條)

64) 1908년 2월 평양 貫洞에서 자본금 6만원에 달하는 대규모 자기회사 설립을 목표로 한 증단 50원씩인 주식 1, 200주를 1차로 공모하였다. 그러나 이승훈이 105인 사건으로 연루되는 등의 여러 요인에 의해 성공하지는 못하였다. 윤경로. 뒷글. 109~115쪽.

65) 1930년 서울에 있던 고무공장 가운데 한국계가 13개, 일본계가 10개 였던데 비해, 평양에서는 한국계 공장이 10개였던 반면 일본계 공장은 1개에 지나지 않았다. 민경배. 『민족교회형

이처럼 평안도에서 가장 먼저 근대적인 상인조직이 형성되었다는 것은 그 이전에 이미 평안도 지역에 상업자본이 상당한 정도로 축적되어 있었음을 의미한다. 즉 전근대적인 형태로 존재하던 평안도 지역의 토착자본이 외국자본의 도전에 직면하여 근대적 자본으로 탈바꿈하여 나아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업자본은 일제하에 들어가서는 상당부분이 생산부문에 투여되어 공업자본으로 전환되어 갔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일제하에서 다른 지역과 달리 끝까지 일본자본에 대한 평양 중심의 토착적 민족자본의 저력과 성격은 바로 여기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공업 자본을 담당한 계층의 상당수는 전통종교보다도 근대종교인 개신교와 친화성을 보이고 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는 일제의 기독교인 탄압사건으로 유명한 이른바 105인사건이다. 이 사건에 관련된 자들의 대부분은 지역적으로는 평안도 출신이며, 종교적 배경은 개신교이고, 직업적 배경은 근대적 직업을 지닌 계층이기 때문이다. 평안도, 개신교, 상공업자의 3가지 변수 사이에 '선택적 친화성'(selective affinity)이 발견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105인 사건으로 기소된 자 가운데 개신교인은 91명이며, 직업별로는 상업에 종사하는 자가 39명, 교사 28명, 그리고 학생이 19명을 차지하고 있다.⁶⁶⁾ 즉 평안도 지역의 대부분의 지도급 개신교인이 상공업과 교육에 종사하는 인사들이다.

이는 평안도 지역에서의 개신교 수용이 근대적 교육 및 근대적 기업의 형성과정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근대성(modernity) 확산의 주요한 운반자인 근대적 교육과 근대적 기업은 평안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며, 개신교는 이러한 근대기업, 근대교육과 함께 근대성을 확산시키는 주요 매개물로 존재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평안도에서의 개신교 수용은 근대성 수용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이러한 수용과정이 가장 급속하고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가능했던 것은 평안도가 지니고 있었던 사회문화적 특성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5. 결론

성사론』(서울: 연세대출판부, 1974). 229~232쪽.

66) 윤경로. 뒷글. 89쪽.

조선조 이후 평안도 지역은 자연적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농업보다는 상업, 문반보다는 무반 중심의 사회성격을 지니고 있었고, 이러한 조건은 농업중심, 문반 중심의 사회체제였던 조선사회의 주변부로 평안도를 위치지우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평안도를 비롯한 서북출신을 중앙의 정치무대에 기용하지 않는 조선조의 인사정책은 평안도인들을 체제저항적으로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지리적 정치적 특성은 평안도의 문화적 주변부성과 맞물려 있었다. 조선조 사회는 정치적 중심과 문화적 중심이 일치하는 사회구조를 지니고 있었으므로 정치적 주변부는 문화적 주변부일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평안도의 이러한 지리적 정치적 문화적 주변성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평안도 지역에 독특한 효과를 나타내었다. 즉 국경지대라고 하는 지리적 변경성은 부가가치가 높은 국경무역을 유발시키는 요인이었으며, 정치적 차별대우는 평안도인의 정치적 박탈감을 경제적 영역에서의 보상심리로 전환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으며, 문화적 주변부성은 새로운 이념이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여러가지 요인들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평안도는 점차 경제적 선진지대이자 동시에 저항지식인의 중심무대로 될 수 있었던 것이다.

19세기초 이른바 ‘홍경래난’으로 알려진 평안도농민전쟁은 바로 이러한 평안도의 경제적 선진성과 저항지식인의 에너지가 결합하여 일어난 운동이었다. 그러나 평안도인의 저항에너지는 이 전쟁을 통해 해소되지 않은채 개항기에 들어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개항은 기존체제의 외곽지대이자 약한 고리에 해당하였던 평안도 지역을 새로운 시대의 중심무대로 만들었다. 즉 평안도는 개항을 계기로 전통사회의 주변부로부터 근대사회의 중심부로 등장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계층은 근대적 상공업자와 근대적 지식인층이었다. 근대적 상공업자나 지식층이 다른 지역과 달리 일찍부터 평안도에서 두터운 층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조선후기 이래 평안도 지역이 지니온 사회문화적 특성에 일차적으로 기인하는 것이다. 조선후기 평안도에 광범위하게 존재한 상공업자나 독립적 자영농층이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상공업자나 지식층과는 구별되지만, 이들 계층이야말로 근대적 전환기에 있어 가장 먼저 근대적인 계층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근대성의 운반자 역할을 하였던 근대교육과 근대적 기업활동의 측면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평안도를 주요 거점으로 한 독립협회 평양지부, 서북학회, 신민

회, 민족기업 활동 등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즉 남부지방이 척사위정론과 의병운동으로 대표되는 구질서 유지 운동에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하는 동안, 평안도를 중심으로 하는 서북지방은 이른바 '개화운동'의 노선을 이은 자강운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자강운동과 밀접한 연관을 지니면서 자강운동의 한 흐름을 이루고 있던 것이 바로 개신교였다. 즉 개신교는 근대적 교육운동과 근대적 기업운동을 통해 자강운동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므로 개신교의 수용은 근대성의 수용과 맥을 같이하며 근대성 수용의 일환으로 나타난 현상인 것이다. 이를 시기적으로 구별하여 보면 개항기에는 기존체제의 타파와 근대문명의 수용이라는 차원에서의 개신교 수용의 특성이 있다면, 일제시대에는 문화운동과 민족운동의 차원에서의 개신교 수용의 특성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는 다른 지역에서도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평안도 지역에서 이러한 현상이 가장 급속하면서도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는 특성이 있는 것이다. 여기에 바로 근대 한국사회에서 평안도 지역이 지니는 종교문화사적 위상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